

기호와 인지: 피스의 심성론

김성도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The sign and the cognition: Peirce's Theory of Mind

KIM Sungdo, Korea University

최근에 들어와 피스는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몇몇 영미철학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피스의 기호학과 현상론의 기본 바탕이 현대 인지과학의 노선과 그렇게 쉽사리 일치할 것 같지는 않다. 본 발표에서 논자는 피스와 인지과학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기호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피스의 이론을 그의 초기 논문들의 분석에 기초하여 비교적 선명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발표 초반부에서 먼저 피스의 프래그메티시즘의 본질을 규정하고 이어서 기호학과의 관련성을 해명한 후, 기호와 인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피스의 사상은 체계적이고 범주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가설적이고 실험적인 본질에 가깝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사유 체계의 기저에 흐르는 과오주의에 기인할 것이다. 그의 사상이 일정한 체계와 구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피스의 사상적 건축물에 입성하는 문은 여러가지 길이 가능하며 지름길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스의 '길'은 이를테면 하나의 미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논자는 그 가능한 입구의 하나로 피스의 기호론과 현상론을 삼아 기호와 인지의 관계에 대한 피스의 독특한 견해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피스 기호학을 이해하려면 피스의 프래그메티시즘(pragmaticism)의 함의를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프래그메티시즘은 의미의 이론이다. 의미는 그것의 파급효과의 패턴과 더불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프래그메티시즘의 준칙에 따르면 의미의 역동적 레퍼런스 체계는 해석의 연속성과 기호 체계에 기반을 둔다. 프래그메티시즘의 요지는 모든 사고는 하나의 기

호이다라는 것이다. 사고를 기호로 파악한 것은 이미 그의 초기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된 바 있다. 단지 그의 이론의 점증적인 전개와 더불어 피스는 사고의 기호학적 정체성을 프래그메티시즘의 본질적인 통합 요소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하는 것은 기호의 발전이며 해석의 과정이다. 이 중단 없는 과정을 피스는 '세미오시스semiosis'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모든 사고가 하나의 기호라는 피스의 진술은 결코 명명론의 형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피스는 프래그메티시즘을 사고-기호 이론으로 파악하며 이 때 실재론은 필수불가결하다. 즉, 사유 뿐만아니라 사유의 대상 역시 반복 가능한 패턴이다. 사유와 기호는 작용적이며 역동적이다.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작용한다. 이때 일반적인 보편적 요소는 활동의 조건들인 역동적 규칙들이다. 또한 사유와 기호가 역동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진화를 한다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기호가 성립하려면 그것은 해석이 되어야 한다. 하

나의 사물이나 경험이 판독 가능하려면 해석이 되어야 하며, 이 말은 곧 기호가 삼원성의 모델로 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호과정을 발생시키는 최초항인 지각 가능한 요소인 표상체 representamen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체object 사이의 매개 요소인 해석체 interpretant는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을 연결하는 일체의 판독 가능한 산물로서 정신적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개별적 사건을 지칭한다.

이같은 기호이론이 잉태된 것은 기호로서의 사고의 기능의 토대가 그 연속성에 있음을 강조한 이른바 퍼스의 반대카르트 논문에서 표명된다. 사유의 연속성과 기호적 특성은 결국 진화의 조건에 달려 있다. 다음 두편의 논문은 이 점에서 다시 찬찬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 1. "Questions Concerning Certain Faculties". 이 논문에서 퍼스의 의도는 지식의 가능성과 한계들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모두 7개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 중 첫번째 질문에서 결정적으로 데카르트의 인지적 직관 개념을 부인한다. 이 부정은 차후 퍼스의 기호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으로 쓰인다. 퍼스는 직관을 비추론적 경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여기서 퍼스는 인간이 직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직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에 의거하지 않는 직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 퍼스의 입장이다. 주석에서 그는 두 가지 종류의 직관을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현재를 현재로서 알고 있을 때 갖는 직관이며, 이 직관은 부정되지 않는다. 퍼스가 의심하는 직관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앞선 인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인지이다. 퍼스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초월적 대상을 부정한다. 우리는 하나의 직관과, 다른 인지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하나의 인지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분은 하나의 경험요인과 다른 대상의 요인을 연결하는 추론에 달려있다. 지식 혹은 앎으로 확정되는 것은 반드시 체계의 부분을 이루어야하며 결코 고립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

다. 인지는 연계성을 통해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퍼스의 인지 개념 파악은 사유를 기호로 파악한 퍼스 기호학의 기초로 쓰인다. 잘라말해 모든 인지과정에는 해석적 성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지식의 요인들의 상호종속성의 원칙은 의식이 발생하는 세계의 사물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퍼스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타당한 직관적 자의식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갖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자의식이란, 추론을 요구하는 그릇된 판단과 무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물음은 다섯번째 물음이다. 이 물음은 우리가 기호 없이 사고할 수 있는 가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퍼스는 인지의 근원에 본질적인 기호 혹은 표상에 대한 암시를 내놓는다.

사고는 기호로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고는 다른 사고에 의해서 해석되어야한다. 모든 사고 그 자체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며 여러 순간에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유가 고립된다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인지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는 다른 사고를 통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모든 사고는 그 자신을 어떤 특정 시점에서 우리의 심성에 호소하는데 달려있다. 하나의 사고와 다른 사고의 관계의 시간적 조건의 도입과 더불어 퍼스는 시네시즘 synechisme 혹은 연속성의 원칙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질문에서 퍼스는 앞선 인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최초의 인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 이것은 최초의 전제조건에서 사유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전제와 정면으로 대결한다. (주: 사유의 출발점과 관련하여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이 피력한 고뇌와 회의의 흔적은 퍼스의 통찰력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의 직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증빙자료이다.

사고는 시간적으로 연결된다. 찰라의 순간에서는 어떤 사유도 일어날 수 없고 의미를 갖을 수 없다.

최초의 인지, 혹은 비규정된 상태의 인지는 -만약 그것이 있다고 가장한다면- 고립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하나의 직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퍼스에 따르면 그 최초의 인지가 과연 하나의 인지인지 알 도리가 없다. 만약 최초의 인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인지들과의 연관성을 통해서만 인지로서 알려질 수 있다. 그것의 인지적 가치는 추론에 종속되며 그것을 연결짓는 과정에 달려있고 그 과정은 시간적이다. 따라서 사고의 절대적 시작은 없다. 사유에는 연속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의식적 사유는 연속물로부터 발현한다.

두 번째 논문 "Some Consequences of Four Incapacities" 에서 퍼스는 심성이 인지적으로 완수할 수 없는 한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 퍼스는 모두 4가지 직능을 부정한다. 1. 우리는 내성의 힘을 갖고 있지 않다. 2. 직관력도 없다. 3. 기호 없이 생각할 수 없다. 4. 절대적으로 인지불가능한 것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없다. 이 중 기호학과 관련된 세번째 물음을 던져보자. 먼저 기호화 과정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인용문을 보자.

"Now a sign has, as such, three references: first, it is a sign to some thought which interprets it; second, it is a sign for some object to which in that thought it is equivalent; third, it is a sign, in some respect or quality, which brings it into connection with its object. Let us ask what the three correlates are to which a thought-sign refers." 5. 283.

하나의 기호가 지시하는 세 개의 상관물에 대한 물음에 답하면서 퍼스는 그의 기호이론을 소묘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생각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사고-기호의 사건성과 시간성이 강조된다. 사고는 '정신적 연상작용'의 법칙에 따라 강물이 흐르듯 '자유롭게 흘러간다'. 각각의 사고는 다음 사고에 무엇인가를 암시하며 앞의 사고는 나중의 사고의 기호이다. 사고

는 연속적 과정에서 시간을 차지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사고는 성장하며 점증적으로 사멸한다. 물론 이 같은 끝없는 자기 수정 과정을 통해 인간은 조금씩 진리에 가까워진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기호의 대상들과 관련된다. 사고기호가 지칭하는 것, 즉 그것의 가정suppositum에 대한 이해가 피력된다. 사고가 동일한 대상에 대한 그 이전의 사고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이전의 사고를 외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시한다. 그 예로서 고유명사를 갖는 한 개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 Abraham Lincoln은 기호 과정을 위한 suppositum 혹은 시작을 하는 대상체이다. 이 개인은 몇 가지 성격과 그가 속하는 성격의 부류에 의해서 지시된다.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한명이다. 따라서 링컨을 한 명의 대통령으로 생각한다. 이 사고는 이 대통령에 대한 다른 해석에 의해서 계속된다. 남자, 인간등의 속성등. 그러나 인간이라는 점은 그 전의 사고 즉 대통령이라는 사고를 통해서 링컨을 지시한다. 그 결과 링컨은 인간 존재인 한 명의 대통령으로서 생각된다. 모든 경우마다 연속되는 사고는 그 이전에 생각된 것을 외시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는 그것의 대상체를 생각된 점에서 지칭한다. 이 점은 생각 속의 의식의 직접적인 대상체이다. 여기서 역동적 대상체는 표상된 대상체와 독립된 것이다.

사고 기호 원칙이 초래하는 세번째 아이디어는 기호로서 작동할 수 있는 사물의 속성들과 관계된다. "기호는 의미된 사물과는 동일하지 않다. 그것 자체에 속하는 특징들을 갖으며 그것의 표상적 기능과는 상관이 없다. 기호의 물질적 조건이 문제된다. 거울 속의 이미지는 반사된 사물의 기호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이미지의 색깔과 형상때문이다. 이 조건은 도상적 의미의 토대이다.

기호와 기호들이 작동하는 조건을 기술하는 단락은 많다. 삼원적 모델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1902년에 쓴 한 단락을 보자.

"A sign, or Representamen, is a First which

stands in such a genuine triadic relation to a Second, called its Object, as to be capable of determining a Third, called its Interpretant, to assume the same triadic relation to its Object in which it stands itself to the same Object." 2.274

"Grant, then, that every thought is a sign. Now the essential nature of a sign is that it mediates between its Object, which is supposed to determine it and to be, in some sense, the cause of it, and its Meaning...the object and the interpretant being in two correlates of every sign...the object is the the antecedent, the interpretant the consequent of the sign." MS.318, pp.328-32)

이승만에 대한 사고의 예를 들어보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삼원적 관계에서 지탱된다. 그 관계의 성분 요소들은 1. 그것의 대상체 곧 명명된 것, 2. 명명 그 자체 3. 기호가 규정하는 또 다른 사고-기호. 기호가 규정하는 해석체는 이승만을 지시하는 사고와 인간 존재이다. 인간 존재라는 해석체는 남성이라는 다른 해석체로 발전되고 다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해석체로 이어지며 다시 4.19 혁명 이후 해야한 불행한 대통령이라는 해석체로 이어진다. 기호의 이같은 기술descriptions에서 쫓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크게 4가지이다.

하나, 기호는 그것의 대상체에 의해서 규정된다.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 기호는 그것 자체가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서 규정된다. 둘, 대상이나 다른 무엇은 기호를 구속한다. 기호 그 자체는 해석체를 규정하면서 의미를 구속할 뿐만아니라 의미를 창조한다. 비록 직접적인 해석 과정에 외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해석과정은 그것 자체의 고유한 전개 조건들을 포함한다. "상징은 성장한다. 상징은 다른 기호들에서 나오는 발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셋, 해석체는 현실적일 뿐만아니

라 잠재적이다. 네째, 기호와 대상체를 중개하는 해석체 그 자체가 기호가 되며 다시 삼원적 관계에서 최초의 기호가 된다.

이 발표에서 쫓점을 둘 테마는 정신적인 것과 인지의 기호화 (동시에 기호의 정신화mentalisation), 그리고 기호 과정의 삼원성이다. 특히 기호의 삼원성은 다시 퍼스의 현상학적 범주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다시금 기호의 매개성과 삼원성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기호가 또 다른 기호로 전환되는 역동적인 기호 모델은 구조 언어학의 기호 모델과 결정적인 단절을 이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퍼스의 해석체interpretant는 기호가 사람의 마음 속에 산출하는 효과로서 결코 심리적 실재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기호로 변환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퍼스의 해석체 개념은 단지 논리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미적 차원을 지향하는 폭넓은 장을 지향한다. 물론 해석의 가능성이 시행되는 과정에 앞서 전체가 될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경험의 장이 보장되는 공동체의 개념이다.